

XIV. 문화교화의 활성화

박법중 위원*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문화란	105
2. 문화교화의 현재상황과 방향	106
3. 현재의 문제점	116
4. 앞으로의 과제	117

1. 문화란

문화란 인간(人間)의 물질생활 정신생활 등의 모든 생활방식 가운데에서 사람의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 사회로부터 습득한 모든 것의 총칭이다.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의 인사하는 방식, 식사하는 범절, 회의 진행법 등은 모두 문화의 일부이다.

그와 같은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고 또는 시대와 더불어 변해가는 것이다.

문화란 생물학적인 소산이 아니고 사회적 유전의 소산이다.

문화는 자연 제약으로부터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 곧 문화재를 만들어 내고 이를 향수(享受)함으로써 한걸음 향상된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 하였다.

문화의 특징은 인간의 정신력을 바탕으로 물질적 경제력의 수반이 문화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훌륭한 문화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정신과 인물의 노력이

* 박법중 위원 : 원기 84~85년까지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팔복교당 주임교무로 근무하고 있다.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문화의 전파와 상호 영향으로 인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2. 문화교화의 현재상황과 방향

원불교적인 문화형성은 원불교의 이미지를 사회에 직접간접으로 인식시키게 되는 역할을 한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원불교의 문화는 그 영향력에 따라 주위의 원불교 신도는 물론 모든 일반시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여기에 밝히는 내용들은 주로 가시적이며, 필자가 짧은 시간 노력에 의해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내용들임을 밝힌다.

우선 원불교에 등록된 단체와 활동 위주로 살펴본다. 이외에 각 분야에 많은 교도님들의 활동이 있음을 알린다.

1. 원불교의 교역자 복장

정녀의 복장은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남자교역자의 정복착용이 실시됨으로 인하여 남자 교역자의 품위가 높아지고, 교역자의 역할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 원음방송 개국

원불교 교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폭넓게 원불교의 종교개방성과 우수성, 대중과 친밀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부산방송국의 개국을 앞두고 기대가 요구된다.

* 서울원음방송국 개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TV유선방송의 경우는 타 종교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보류중이다. 특히 많은 고객의 확보와 수익자 부담으로 인한 부담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재 활용에 대해 가족 TV와 달리 한계가 있다.

▶ 방송 프로그램의 질의 향상과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와 양성,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의 배려가 필요하다.

- ▶ 각 분야의 활동 내용 및 인물들과 작품활동들을 방송함으로써 그들의 성취감을 얻도록 한다.

3. 교화용품 보급소

원불교 문화의 저변에 많이 자리잡고 있는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차질이 22종, 기름 등. 액자류(처세훈, 부부의 도, 네덕 내탕, 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웃음, 영주 등), 영정류(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 염주류가 70여종류가 구비되어 있다.

불구류(목탁, 죽비, 촛대, 향로, 향, 초, 염주)가 장엄용 및 大·中·小의 형태로 구비됨.

테이프(원불교 성가, 정다운 친구, 국악성가, 대종사 일대기, 정산종사 일대기, 팔산대봉도 일대기, 기타)

- ▶ 기독교 서적에 구비되어 있는 잡다한 문구류(노트, 볼펜, 책갈피 등), 액자류(성화, 성구) 소모품류 등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비교하여, 원불교에서도 물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의 상대로 우리상품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면 한다.
- ▶ 교화용품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현장 교화일선의 교무와 교도들에게 필요한 물품의 설문 조사와 어린이집과 어린이·학생 등의 청소년교화 그리고 일반교화 등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의 개발은 교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 ▶ 교단 전체적으로 볼 때 기관 및 교당에서 다른 물품개발로 인한 수익금벌이를 하거나, 싼 물건을 찾느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나, 막연한 생각에 가까운 곳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쓰는 일들이 많이 교화용품 보급소의 물건을 쓰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효천 교무는 교화용품 취급 물건의 값을 많이 내리고 물건의 다량 구입시는 20%까지 할인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으며, 용품보급에 소비자편에 서서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필자가 직접 들었다.

이제는 물품에 관한 것은 교화용품 보급소에 맡기고 교무는 오로지 교화에만 전념 하실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먼 거리일 경우에도 물건이 쉽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을 믿고 살리는 차원에서이다.

- * 물품제작소와 협력하여 다양한 용품들을 개발하여 요사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이효천 교무의 노력이 보인다.
- * 현재 향과 초에 일원상을 디자인해 넣었고, 우리 색깔과 내용에 맞는 물품을 기획하여 마련해 놓고 있다. 물품을 원불교용으로 토착화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4. 예술분야

1) 예술인 교당

종로교당에 다산법사님이 재직시 법사님으로 인하여 신영희·임이조·조상현·김월화·안비취·이매방·김소라 등 예술인 60여명이 원불교에 입교시키게 되었다. 60여명이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교단 2대말 성업봉찬회 일환으로 11개 도시에 대중사님 생애를 다룬 창극 「개벽의 북소리」를 공연 3만명의 관객을 동원 하였다.

소태산 탄생 백주년 사업으로 「창극 소태산」을 공연하였다. 종로교당 청년 50주년 행사에 정태춘이 공연에 참석하였다.

소태산 백주년행사에 어린이 예술단 50명이 조직이 되었고, 무동까지 150명이 동원, 사물놀이 100명 동원하여 예술적으로 빛나는 행사를 치렀다.

- * 교단외적 활동으로는 호주·뉴질랜드교당에 「춘향전」 공연, 독일교당에 「황진이」를 공연하였다.

작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방문공연으로 인하여, KBS에서 김선경 교무와 모스크바 교당의 교무가 60분 기획으로 소개가 됐다.

작년 50회 공연이 국립극장과 호암아트홀 등 국내외적으로 됐으며, 앞으로 북한 평양에 공연을 갈 예정이다.

- ▶ 어린이 예술단의 경우 교단에서 지원이 안되어 운영이 안 된다. 통일교의 경우 몇 백억을 투자하여 선교차원으로 해외 및 국내공연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교단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 ▶ 예술인 교화에 대한 중간 점검과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통한 세미나의 개최와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 ▶ 라디오 방송교화의 예술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텔레비전 방송교화(유선방송 포함)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감성의 요구와 장인정신과 같은 예술의

혼이 살아 숨쉬는 예술인들의 가치는 돈과 가치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자원임에 말할 것이 없다.

- ▶ 앞으로는 전통문화가 발현이 되는 시대이며, 동양의 우수한 문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 「춘향전」 공연에 천주교 성베네딕트 수녀들이 공연 때 매일 50명씩 다녀간다고 한다. 또한 매일 관람자들이 9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세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족하며, 간접적인 교화의 장이 되기도 한다.

2) 국악

우종양 교수의 국악 CD제작과 4측 2재 전야제 행사의 연주지원이 되고 있다.

원불교 전국 청소년연합회에서 전국 풍물경연대회가 계속되어 왔다. 봉불식, 어린이 민속놀이잔치 행사시 교역자 또는 청년팀 또는 봉공회 등의 사물놀이가 자주 선보이게 되었다.

3) 미술인 협회(회장 : 권도원 교무)

- ① 사찰과 기독교가 미술과 음악 등이 예술로 인하여 발전되어왔듯이, 원불교도 예술의 승화로부터 교화가 발전이 되고 신심이 깊어지도록 해야 한다. 종교의 영적성장과 혼을 불러내는 데에는 예술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
- ② 줄속주의와 물량위주를 버리고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정성으로 예술품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한다.
 - * 6월 10~24일에 베를린 한국문화원에 100점의 작품전시(1,020만원 소요)
 - * 5월 6일에 필라델피아 시립도서관 이스트 갤러리에 35점 전시, 19점은 필라교당에 전시(600만원 소요)
 - * 5월 15~12월 31일부터 100인 작가 초대 한울안 미술제 : 원광대 도서관
 - * 원광대 도서관 전시 예정 : 이철규 초대「우리강산 한울안전」, 박은주 초대「한울안 꽃 그림전」, 정병례 초대「한울안 법어 서예전」
 - * 파리 원미전 : 정산종사 13성적도(정진웅 화백 그림)
 - * 시드니 올림픽 기념 류일선 초대「정산종사 성적도」, 「한국혼과 자연전」
 - * 모스크바 교당위한 전시 김승호 초대「한국의 자연과 혼전」(600만원 소요)
 - * 100주년 기념 문제성 초대「정산종사 성적화」 및 「한국의 자연과 혼전」 맨하

탄 교당 전시

* 작년 9월 효봉 여태명 교수 초대 「정산종사 법어 서화전」

* 작년 8월 대구에서 현담 효봉 「한울안 법어 서예전」

근래에 이상과 같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전시회를 갖고 있으며, 해외교당 교화에 일익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원광대에 그림 및 서예 등의 전시를 통하여 원불교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작가들의 회사와 주위 교무님과 인연들이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상당한 회사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를 금할 길 없다.

그동안 「원미(圓美)」의 꾸준한 발간과 「원상의 이미지」·원미회원 작품발표회 등의 많은 전시회의 활동으로 이어왔다.

그러나 원미 회원들의 작품이 종교성(宗教性)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교적인 체험과 종교생활의 깊은 이해 등으로 인한 작품이라야 대중에게 폭넓게 감명을 줄 수가 있다.

주로 일원상에 관한 추상적인 이미지나 단순한 서예 및 그림 등의 표현이 많이 나왔으나, 이것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신앙과 수행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식구의 인재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4) 음악인 협회

주로 원광대학의 음악과를 중심으로 타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교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나 카톨릭 산하대학에는 다양한 음악전공의 학과가 많이 있어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음악과의 증설과 인재배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필자 카톨릭에서 주최하는 전복 종교인 모임에 음악반주로 첼로, 바이올린 2명, 클라리넷, 피아노의 연주로 명사시간과 노래반주로 들려주는 소리는 정말 멋있게 들렸다. 이러한 연주를 법회에 활용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하였다.

5) 애니메이션과 이미지 개발(이 내용은 이도하 교무의 의견이다.)

- ① 기존의 단순화 강의에서 사이버 방을 통한 훈련, 안내, 교육, 교재개발이 시급하다.
- ② 현재 급속히 발전은 하고 있는 영상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그래픽, 인터넷 관련 기획, 영상촬영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웹 디자이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텔레비전(유선방송) 등의 영상시대가 눈앞에 도래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출가 재가의 숨은 인력들을 결집하고 양성하여 가야한다.
- ③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첨단 미래형 시스템을 실설을 갖춘 인터넷 환경 제작 및 이용 시설이 필요하다.
- ④ 교단에서 장기적인 계획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짜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영상문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인재양성과 함께 단계적으로 교재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 ⑤ 앞으로 2005년에는 현재보다 천배나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전용선의 인터넷을 통한 화상교육과 회의가 실시되어진다. 앞으로 콘텐츠사업으로 발전으로 사이버 영상·전자상거래 등을 매개로 한 활동에 뒤지면 팀이나 업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실정이 된다.
- ⑥ 대각개교절 프랭카드 및 포스터에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 개교절 이미지 홍보에 한 몫을 했다. 처음 이도하 교무(경기도 청강문화산업대학 애니메이션학과 교수)가 했고, 다음에 장여숙 교무(원광대 시각디자인학과 재직중)가 디자인 했다. 원기 76년 대중사 탄생 100주년 때 홍보탑, 무대, 안내 팜프렛, 명찰, 기념품 등에 디자인을 도안하여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과 캐릭터의 개발은 원불교 행사와 교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우리 인력을 양성하여 쓴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교회부 김진성 교무)
- ⑦ 문화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 불교성탄절→연등, 크리스마스→추리, 케롤송 등과 같이 대각개교절 이벤트가 나와야 한다.(권도갑 교무)

5. 다도(茶道)

다인(茶人)협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나, 교단 전체적으로 볼 때 다도(茶道)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처음 고주심교무가 영주교당에서 다도활동을 선구적으로 교화에 노력하고자하여 점차 교무들 사이에 널리 확산이 되었다. 중앙훈련원에서 교무훈련중 특활반에 다도(茶道)반이 운영되었고, 고주심 교무·이진수 교무·전명진 교무·김정덕 교무·이운숙 교무·최강연 교무·박순정 교무들은 교화에 연계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경옥교무 등은 영산대학에서, 기타 많은 교무들이 다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다인(茶人)협회는 한기두 교무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다.

* 특히 원광 어린이집(유치원)에서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다도교육을 기본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어 대부분 다도를 실시하고 있다.

* 정남정녀 선서식에도 벼루에서 다기(茶器)로 바뀌었다.

* 다도가 보편적인 것으로 확산되고 있어 원기 85년도 교화연구소 연구발표회(85. 6. 21. 전명진 교무 발표, 이진수 교무·은성의 교무 논평) 원기 85년 6월 5일에 정화의 날에 『은다례 발표』 및 헌공다례에 대한 행사 특별계획도 일부 교당에서 시행되고 있다.

배내청소년훈련원 봉불식에 헌다를 한 사례가 있다.

* 은성의 교무의 삼례여고의 다도 특활반을 운영하는 등 사회의 간접교화의 참여가 늘고 있다.

▶ 다도(茶道)에 관한 책자들이 일부 교무들에 의해 나오고 있으나, 원불교 교무들 사이에 널리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듯 하다. 책의 권수를 충분히 발행하여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다도교화의 사례를 잘 정리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정리하여 우리의 의식과 생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으면 한다.

녹차는 우리 전통문화에 배어 있고, 쉽고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나 어울릴 수가 있으며, 선(禪)적인 분위기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교무와 교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6. 문인협회

◆ 활동내용

- 2년마다 『청소년문학상』 개최
 - 매월 시문학회 모임(마지막 주 화요일)
 - 문집발간 : 현재 5집발간(1999년 12월, 410쪽)
 - 문학의 밤 행사
 - 원불교 문학자료집 발간
 - 격월간 소식지 발간
 - 봄·가을 문학기행(성지 위주로 다녔음)
 - 어린이날 민속잔치에 백일장 공동주관
- 현 회원은 107명으로 등록되어있음.

◆ 추가 활동계획

- 범산 문학상 제정 예정
 - 회원 확대를 넓혀갈 예정
 - 1년마다 청소년 문학상을 개최를 고려
- ▶ 원불교 단체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편이다.
원불교 문학은 원불교 문화의 뿌리가 되므로 문학의 활발한 발달로 인하여 모든 예술활동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 문학의 모든 분야가 활발히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사업을 통하여 작품활동이 장려되었으면 한다.

7. 어린이 민속 큰잔치

처음 양해관 교무의 발상으로 인하여 시작된 행사가 전국과 해외에서 20여군데가 넘는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의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이 되어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각 지역의 행사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있다.
- 대회 주최인 『삼동청소년회』기와 어린이민속 큰잔치의 상징인 『원돌이』기의 제작·보급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할 것이며, 기본지침을 체계화 할 것.

- 민속놀이인 만큼 전통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속에 의한 장엄과 다양한 소재와 꺼리가 함께 활용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민속 연날리기, 민속 떡 만들기, 한복입고 오기 등)
- 처음 행사를 치를 때보다 열의와 노력이 많이 식어 의례적인 행사로 되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 * 이미 개발된 포스터를 계속 활용하여 홍보에 정성을 다 함으로써 행사문화가 일반인들에게 깊게 심도록 할 것이며,
 - * 예산이 적게 드는 것만으로 계획하기 보다는, 기대의 효과를 내는데 알맞은 투자로 실속 있고 사랑받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며,
 - * 정성있고 창의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기관에 의한 원불교 문화홍보

1) 교립학교

원광대학교, 영산원불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원광보건대학, 원광고교, 원광여고, 원광중교, 원광여중, 해룡고교, 해룡중교, 성지고교, 경주화랑고교, 원경고교가 있다.

- * 원불교 씨클의 권장과 학교 내 법당의 운영으로 원불교의 직접 간접적으로 알리는 장이 되고 있다.
- * 원불교 학생들의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2) 원대병원

군산의료원, 전주한방병원, 군포병원, 광주한방병원, 순천한방병원에도 법당이 마련되어 교화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 * 대학병원장인 김상수 박사와 의사들의 적극적인 법회참석을 독려함으로써 교화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굳건한 결심과 행동이 모든 일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 * 원불교 및 일반들의 호스피스, 간병인,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당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서 교화에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유치원)

전국 170여개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있어 교화의 큰 장이 되고 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이미지와 우수한 운영의 평가가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자모들과 어린이집(유치원) 출신의 어린이 교화의 바탕이 되고 있다.

- ▶ 원장의 역량과 정성에 따라 운영의 성패가 크게 좌우가 된다. 그러므로 출가·재가의 인재양성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 많은 어린이집(유아학교)의 난립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낙후된 시설은 투자가 필요하며, 정보교류로 인하여 앞서가는 교육이 되도록 연수와 배움을 통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 ▶ 원광유아기관의 담당 부서인 천심(天心)회의 역할이 미비하여 원광유아기관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전공 이수자인 교무가 교화부에 주재하여 있으나, 타 업무인 청소년 업무에 주력 할 뿐 원광 유아기관의 실질적인 지침과 정보제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상적인 이상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인사정책에는 실전 경험이 많고 특별한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겸 교화부 천심회 담당교무로 발령이 났으면 한다. 교당의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배려된 교무라야 한다.

4) 복지기관

복지기관들의 알찬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원불교에서 지속적으로 종합복지 사회관, 청소년 수련실 및 수련관, 노인 복지병원을 비롯 각종 기관들의 위탁을 받고 있다.

인근교당과 연계하여 상호 협조를 얻도록 하며, 열린 복지관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일체감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문화부의 기획사항

1) 인터넷 홍보

모든 문서와 소식을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전파할 수가 있다.

2) 신문 스크랩 CD작성

3) 자료실 관리

- ▶ 일반문서자료의 수집·관리·연구에 대하여서는 인력 등의 부족으로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좋은 정보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재산을 사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일원문화재단

일원문화재단의 기금으로 기획연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 도운회(道運會)

원불교 교도인 개인택시 기사들의 모임으로 매주 법회를 갖고 있으며, 원불교의 홍보와 뜻깊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익산시와 전주시에 도운회가 결성이 되었으며, 군산·정읍 등지에 점차 확산되어 질 움직임이 되어지고 있다.

3. 현재의 문제점

1. 교단에 등록된 현재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일면에 능력을 가진 전문인들이 다소 있으나, 모임체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적다는 점이다. 대개 일년에 1~2번 행사정도에 그치고 있다.

2. 원불교 정서에 맞는 전문인 양성이 시급하다. 작품 활동이 양적인 것도 중요하나 질적인 작품이 더욱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행사만 많이 벌여놓고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다.

3.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재의 실정과 규모가 문화의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다. 예술인과 전문 분야에서는 인재도 그리 많지도 않고, 경제력도, 생각대로 뒷받침할 만큼 여유도 없고, 보편화되기 전까지 처음 시도되는 특정분야에 대한 인식이 적으며,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시도한다는 것은 외롭고 한계에

이르는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4. 교당·기관은 물론 교단 전체적으로 전문이 인재양성과 문화교화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원하여야 하고, 전문인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주무부처는 물론 단체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앞으로의 과제

1. 강점사업의 확대

◆ 사회활동

1. 여성회 운동

* 여성도 남성과 같이 자력양성을 위한 배움의 확대

* 책임과 의무의 균등한 확대

* 남녀권리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의 노력이 필요

2. 환경보호운동

3. 종교연합운동

4. 도덕부활운동

▶ 원불교적인 이론적인 정립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역량과 업적을 쌓아나아가야 하겠다.

◆ 지속적인 예술인 관리와 공연 및 작품활동

2. 방송매체의 활용과 발전전략이 필요

종법사님께서도 「사람을 한 사람씩 날개로 잡는 것보다 큰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하면서 방송교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1. 라디오 방송의 전국적으로 확대는 물론 텔레비전을 통한 영상방송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다양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2. 특히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원불교적인 사상과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록 하여 폭 넓은 방송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3.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것이 간격 없이 소통되는 때를 맞이하였다. 원불교의 문화 개발은 교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현재의 문화교화 평가와 올바른 비전 제시

1.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파악

각 분야별로 객관적인 성과에 대하여 진단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냉철한 비판과 바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각 계층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우리의 문화상품을 제대로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2 타종단의 사례와 비교분석

신학대학에서는 이미 다양한 음악·미술 등의 문화예술과 교화전략의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춘 선교를 하고 있다.

원불교에서도 원광대학·영산원불교대학교·원불교대학원대학교 및 특성화된 고등학교 음악·미술·애니메이션·영상 등의 학과를 설립 또는 확대하여 우리 인재 기르기에 노력하고, 타 대학에 재직하는 교도인재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타종교의 문화상품개발을 분석하여 우리 문화교화에 대한 계획을 짜는데 참고한다.

* 예를 들자면 기독교의 다양한 교화용품 개발, 경전의 해석서, 비디오 제작 대여, 캐릭터 개발, 성화(聖畵), 복음성가 보급, 성가대운영, 교회에 교육관 운영, 성물(聖物)개발, 예배에 다양한 악기활용, 전문인력활용(이·미용자 봉사활동 등) 등

* 지금 유럽에선 통일교의 무예인 “원화도”를 선교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불교 정시에 바탕한 무예를 만들어 교화용으로 보급하는 것도 좋겠다.

3. 교단의 장·단기 발전 전략과 교법과의 연계성

- ▶ 각 분야대로 발전 전략과 타분야와 전체적인 계획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끊임 없는 수정과 설정으로서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자.

- ▶ 타 분야의 이해와 섭렵 및 협력 그리고 교리에 부합한 이론화함으로서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자.(끊임없이 배우는 장을 만들자)

각자의 분야의 전문인은 물론 주위환경을 잘 활용하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4. 인재양성과 관리를 활용

- ▶ 현 인재를 파악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모임과 발표(전시)활동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한다.
- ▶ 현 상황에 알맞은 지원과 그들이 소속감과 성취감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
- ▶ 원불교 교단의 어느 분야이든지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원불교적인 정신과 의식을 이해하도록 권한다.
- ▶ 인재들의 장래의 진로와 성취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제시한다.

5. 문화교화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각자의 역할

- ▶ 관련된 전문인들의 책을 보거나 강의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 전문인들의 역할·특성·활동내용·교단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알도록 한다.
- ▶ 문화교화의 중요성(필요성)과 이미지관리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종교적인 문화의 힘을 이해하도록 한다.
- ▶ 자신의 위치와 형편속에 자신이 문화 교화발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바르게 알도록 한다.
- ▶ 물품의 소비와 이익·개발 등을 위하여 시장의 확대와 필요한 사람의 참여를 유도한다.

6. 시대흐름의 전망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

- ▶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들을 많이 모셔다가 미래학·경영학·마케팅·사회학·우수사례 등을 듣도록 한다.

▶ 지속적인 연구와 세미나 등을 열어 기획해 나간다.

7. 한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복지기관 시설과 혜택이 전라도쪽에 기울어진 점이 있다. 타지역과 수도권에 확대되도록 한다.

▶ 여러 지역과 각 계층, 그리고 각 분야에 고루 발전이 되도록 한다.